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4,19-20)



〈사도들을 부르심〉,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1481년, 시스티나성당, 바티칸

[제1독서] 이사 8,23 - 9,3

[제2독서] 1코린 1,10 -13,17

[화답송] 시편 27(26),1,4,13 -14
 (◎ 1ㄱ)

[복음 환호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 님 은 나의 빛 나의 구 원 이 시 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 4,12-23 <또는 마태 4,12-17>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 봉헌성가: [221] 받아 주소서
 - 성체성가: [153] 오소서 주 예수여
 [185] 구원의 희생자
 - 파견성가: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12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15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 18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 23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 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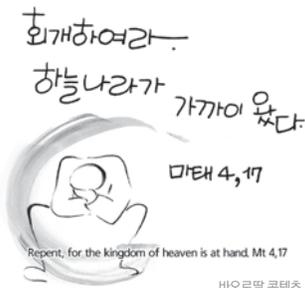
예수님 시대에 갈릴래아는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 불법을 저지르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 팍팍한 곳이었기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갈릴래아를 멸시하였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면, 품위 있고 고상한 시간을 즐기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지요. 요셋말로 ‘누구는 편안히, 즐겁게 살고 싶지 않겠냐?’ 는 푸념이 갈릴래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선포하신 곳은 바로 갈릴래아였고, 공생활의 대부분도 갈릴래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가난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은 대개가 아프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내세울 만한 능력도 기술도 명예도 없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 시작하셨지요. 개천에서 용 나듯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언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유한 도시나 성공한 이들의 생활 방식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갈릴래아의 큰 도시, 예를 들어 세포리스와 같은 큰 도시에서 벌어지는 삶의 구체적 언급은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회적 약자들의 만남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부자와 성공한 사람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고, 그 연민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기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처지를 살피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하느님의 말씀 주일 로고

연중 제3주일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 로 선언하였다(2019년 9월 30일).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이날을 봉헌하며 장엄하게 지내기를 권고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루카 24.45).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행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파스카 신비의 의미를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회개와 죄의 용서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루카 24.26.46-47 참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 구원 신비의 증인이 될 힘을 주실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루카 24.49 참조).

부활하신 주님과 신자 공동체와 성경이 이루는 관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는 주님께서 안 계신다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참으로 그러합니다. 곧, 성경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분 교회의 사명에 따른 여러 사건들은 이해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다음과 같은 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저는 이 교서를 통하여,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봉헌하는 날로 선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 거행은 교회 일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이들에게 참되고 굳건한 일치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동체들은 저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장엄한 날로 지낼 고유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성찬례 거행에서 성경 봉정을 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의 규범적 가치에 회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



<www.vaticannews.va>

말씀의 선포를 강조하고, 강론에서도 주님 말씀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공경을 부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경청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일치 안에서 모든 이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 백성의

책이기에, **말씀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자신이 맡은 공동체가 성경에 맞들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

교리교사들 또한 성경을 가까이하고 연구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는 직무를 위하여 스스로를 쇄신할 시급한 필요성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듣는 이들이 하느님 말씀과 참 대화를 나누도록 북돋워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성찬례 거행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는 주님 현존에서 힘을 얻어 역사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잘 알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빵을 나누어 주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형태로 눈이 먼 채, 감은 눈과 냉담한 마음만 지니게 될 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제정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중에서>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6, 2020

Jesus tells us to repent

Today we hear about Jesus beginning His mission of preaching and healing the sick. The very first thing He tells the people is that they should repent from their sins.

Why do we need to repent of our sins? Why don't we just stop thinking about the bad things we did and start trying to be good?

Well, pretend your soul is like a garden. When you sin, it's like making a big hole in the ground. You can't grow flowers in

a hole, and someone might trip on it and make the hole bigger. That's what can happen with sins too- little sins can cause bigger ones.

When you are sorry for your sins and go to confession it's like filling in the holes and planting flowers where they used to be. Keep your soul like a good garden and make sure you don't have any holes in it!

<<https://www.thekidsbulletin.com>>



Sunday of the Word of God : making the Scriptures part of our everyday lives

A press conference in the Vatican details the many aspects of the newly established 'Sunday of the Word of God' to be marked on 26 January. Pope Francis will celebrated Holy Mass in St. Peter's Basilica for the occasion.

Pope Francis is inviting Catholics across the world to deepen their appreciation, love and faithful witness to God and his Word.

That's why, as established by a papal decree - the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6 this year, is to be observed as a special day devoted to "the celebration, study and dissemination of the Word of God".

As Archbishop Salvatore Fisichella, President of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New Evangelization explained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Friday, it is an initiative that the Pope has entrusted to the whole Church so that

"the Christian community may concentrate on the great value that the Word of God occupies in its daily existence" (Aperuit illis 2).

An opportunity to renew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Fisichella said the occasion offers Christians an opportunity to renew their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inexhaustible

richness that comes from God's constant dialogue with his people."

He said it foresees a host of creative initiatives "that will stimulate believers to be living instruments of transmission of the Word," and comes in the wake of the many different pastoral initiatives spurred by the 2008 Synod on the Word of God that aimed to increase and enhance the knowledge, diffusion, reflection and study of Sacred Scripture.

The Archbishop mentioned a series of projects and programmes that have been launched across the globe since that Synod, to learn to pray with the Bible and

to make the Word accessible in different languages and formats.

He said that by establishing this Day, the Pope intended "to respond to the many requests that have come from the people of God, so that throughout the Church the Sunday of the Word of God may be celebrated in unity of purpose".

By *Linda Bordoni* <www.vaticannews.va>



Unscramble and Fill in the Blanks

A Prophecy about Jesus...

Unscramble the words below to fill in the blanks in the prophecy from today's first reading. [IS 8:23—9:3]

WORD LIST

OJY KOEY SNAKDRE
GLTHI EHSMSAD ASEVHRT

The people who walked in _____
have seen a great light;
upon those who dwelt in a land of gloom
a _____ has shone.

You have brought them abundant _____
and great rejoicing
as they rejoice before you
as at the _____,
as people make merry when dividing spoils.

For the _____ that burdened them,
the pole on their shoulder,
and the rod of their taskmaster
you have _____,
as on the day at Midian.

Saint Thomas Aquinas

Feast | Jan 28



- Priest and Doctor
- Patron Saint of all universities and of students
- 1225 - 1274

St. Thomas Aquinas understood so much about God, so he was able to teach and write about Him. He wrote many important books that we still use.

◀ This stained glass window of the Saint and Common Doctor of the Church is in the Franciscan Monastery in Washington DC.



WorkCamp 2020



- • • • • **Arlington Diocese WorkCamp** is
- • • • • a week long experience providing the teens of our Diocese an intense conversion experience through **service, community, and prayer.**

Through the WorkCamp program, we seek to serve our fellow Virginians by making their homes warmer, safer, and drier.

WHEN June 20(Sat) - 26(Fri), 2020

WHO Open to 9th-12th graders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serve as

- adult crew leaders (two men and two women)
- contractors(4 people) and more.

WHERE Winchester, VA

CONTACT Mr. Yongwoo Kwon Stephano
at (571) 244-0333 or yong@yongskwon.com



The Pope's Intentions for the Month of January 2020

Promotion of World Peace

We pray that Christians,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and all people of goodwill may promote peace and justice in the world.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표어 공모

본당 승격 25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인 성숙 및 화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의미의 기념 표어를 공모합니다.
 • 표어의 글자 수는 18자 이내 • 마감 : 3월 31일(화)

○ 하상회 정기 총회

하상회는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본당 승격 25주년을 준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로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두 번 바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달에 생일을 맞는 형제들을 축하하고 작년 12월 선종한 고 최건식 세르지오 형제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9년 결산 및 활동 결과 보고와 2020년 예산 및 활동 계획 보고와 승인으로 총회를 마쳤다.



○ 안나회 월례회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안나회 월례회가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회원들에게 “본당 승격 25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묵주기도 1백만단 봉헌에 적극 참여하고 매일 저녁 9시에 드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원들은 이 달에 생일을 맞은 자매들을 함께 축하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베드로회 모임

본당 40대 가족 모임인 베드로회가 지난 19일(일) 설을 맞이해 친교실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열두 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비빔밥을 나눠먹은 뒤 세배와 윷놀이, 제기차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베드로회는 두 부부 중 40대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친교 단체로 매달 셋째 주일 1시에 친교를 갖는다. (문의: 베드로회 회장 이정봉 우발도 714-944-0781)



축하드립니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의 사제서품(1월 28일) 28주년을 한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표어> 공모

본당 승격 25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인 성숙 및 화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의미의 기념 표어를 공모합니다.
 • 표어의 글자 수는 18자 이내 • 마감 : 3월 31일(화)

1 단체 홍보의 날

- 일시 : 1월 26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각 단체를 소개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텃밭 가꾸기 세미나 (교육부)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A-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3 루카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2)

4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3)

5 K of C 월례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4)

6 복사단 모임

- 일시 : 1월 26일(일) 오후 1시 (B-1,2)

7 삐뜨리치안회 모임

- 일시 : 1월 26일(일) 오후 2시 (A-1)
- 주제 :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

8 울뜨레야 모임

- 일시 : 1월 31일(금) 오후 8시 (A-1,2,3)

9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11:30 (B-1,2)

10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2월 2일(일) 오후 1시 (B-1)

11 2020년 학생 견진성사반 등록

- 대상 : 7학년 이상
- 접수 기간 : 2월 9일(일)까지
- 접수 장소 : 하상관 교무실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2 청소년 사도회

- 일시 : 2월 2일(일) 오후 1시 (B-3,4)

13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9일(일) 10시 미사 중
- 환영식 : 2월 9일(일) 오전 11:30(A-1,2)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김 아놀드 / 레지나 (703)517-3665

14 장수사진 촬영 (안사회 주관, 문화부 협조)

- 일시 : 2월 9일(일), 2월 16일(일) 8시, 10시 미사 후
- 장소 : 하상관 체육관
- 안사회 회원들은 8시 미사 후 사진 촬영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0 Work Camp (고등부)

- 일정 : 6월 20(토) - 6월 26일(금)
- 대상 : 9학년 - 12학년 학생 / 성인 Crew Leader (남 : 2명 여 : 2명, Contractor : 4명) 봉사자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4-0333

2차 현금

이번 주일(1월 26일)은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세계 평화 증진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이 세계 평화와 정의의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Pope's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Promotion of World Peace

We pray that Christians,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and all people of goodwill may promote peace and justice in the world.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주간 : 집회 13 - 18, 콜로 3**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30일(목) 오후 5:00-6:00
 1월 31일(금) 저녁 8:00-9:00
 2월 2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양정우 교수의 교회미술 2천년 (7회) : 초기 르네상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1월 29일(수) 오전 6:15-6:45
 2월 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과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 '죽음 깨안기'(2부)
 ※ 카카오톡에 '라디오 워싱턴 AM1310'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월 19일(연중 제2주일)

| | |
|------------|--------------------|
| 주일헌금 | \$7,946.00 |
| 교무금 | \$10,145.00 |
| 교무금(크레딧카드) | \$2,200.00 |
| 감사헌금 | \$370.00 |
| 2차헌금 | \$0.00 |
| 합계 | \$20,661.00 |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주일 | 구역 |
|------|----------------------|
| 첫째 주 | 페어팩스 3, 버크 |
| 둘째 주 |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
| 셋째 주 | 라우드,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
| 넷째 주 |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정명규(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지(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사온),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틀승(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7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아나), 이영민(다윗), 한양수(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첨(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도니), 심용천(요한), 정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정수지(요안나),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야나시오), 제임스 리(호천), 안병진(다니엘), 제이슨 영학(마틴), 이상욱(다윗)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 날짜 | 축일 | 행사 / 모임 |
|-----------|----------------------|--|
| 1월 26일(일) | 연중 제3주일 | 단체 홍보의 날(친교실), KofC(오전 11:30, B-4), 요한회(오전 11:30, B-3), 루카회(오전 11:30, B-2),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삐뜨리치안회(오후 2시, A-1) |
| 27일(월) | 연중 제3주간 | 평일미사(오전 6시) |
| 28일(화)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
| 29일(수) | 연중 제3주간 |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
| 30일(목) | 연중 제3주간 | 평일미사(오전 6시) |
| 31일(금) |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평일미사(오후 7:30) |
| 2월 1일(토) | 연중 제3주간 |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
| 2월 2일(일) | 주님 봉헌 축일 | 레지오 마리아(오전 7시),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

| | | | | |
|--|---|--|---|---|
|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
|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
|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
|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
|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
|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
|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
|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
|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 보험 가입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 |
|---------|---|
| 주일미사 |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
| 토요일 저녁 | 07:30 PM |
| 주일학교 수업 | 주일 10:00 AM |
| 월 & 목 | 06:00 AM 화 & 금 07:30 PM |
| 수요일 | 11:00 AM 토요일 07:00 AM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